

# 광주시, 사람 대신 AI가 당직 선다

### '인공지능 당지기' 특별 채용...재난안전상황실 통합 운영 특·광역시 최초...혁신 사례 꼽히며 타 지자체 벤치마킹도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광주시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직원 당직제를 전국 특·광역시 중 최초로 폐지하고, 'AI당지기'를 특별채용했다.

광주시는 1일부터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AI 당지기'를 특별 채용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해 24시간 운영하는 재난안전상황실과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야간·휴일에 접수되는 당직 민원 대부분이 긴급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단순 민원·타 기관 이첩 사안이고 당직자 다음 날 휴무에 따른 업무 공백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당직제를 손보기로 했다.

실제 지난해 당직 민원접수 현황은 총 1592건으

로 일평균 4건에 불과하고, 이중 86%(1376건)는 교통이나 주차자 불편 등 단순 민원이거나 타 기관 소관인 이첩 민원이었다.

광주시는 직원 3~4명이 일·속직 당직 근무를 하고 다음 날 휴무하는 것이 행정 능률이 떨어진다 고 보고, 24시간 운영되는 재난안전상황실에 당직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또 단순·이첩 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인공지능(AI) 보이스 로봇인 '당지기'를 특별 채용했다.

'AI 당지기'는 실시간으로 민원을 자동접수(음성·보이스ARS)한 뒤 5개 자치구, 종합건설본부 등 해당 민원 처리기관을 연결하거나 담당부서에

전달해 응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특히 AI보이스봇을 통해 접수한 민원 통화 내용, 통계 등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게 돼 민원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당직근무 폐지는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업무를 과감하게 개선한 AI시대 혁신사례로 꼽히면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당직제 변화는 지난 2년여 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출한 결과물로, 그동안 고생해준 전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특히 불요불급한 업무개선은 조직의 작은 변화이지만 의미 있는 발걸음이며, 이러한 변화는 공직자의 존재 이유인 시민행복과 광주의 더 큰 변화를 위한 혁신의 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더울 땀 물놀이 가장 인기...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1일 광주 서구 화정4동 맛고어린이공원에 문을 연 물놀이장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전남에서 여름 휴가철 무더위 날리세요"

### 가마골생태공원·기찬랜드 등 추천

전남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남 송호해수욕장, 담양 가마골생태공원, 함평 돌머리해수욕장, 영암 기찬랜드를 무더위를 식혀줄 8월 추천관광지로 선정했다.

담양 가마골생태공원은 계곡과 폭포, 기암괴석이 수려한 경관을 이루고 있어 사계절 내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원시림과 계곡이 어우러져 무더운 여름에도 산책 명소로 꼽힌다.

영산강의 시원지인 용소와 계곡 사이에 걸쳐 있는 출렁다리를 건너면 간담이 서늘해져 더위를 잊게 한다. 인근 담양 고서면에 위치한 명옥헌 원림은 8월 중순이면 배롱나무꽃이 절정을 이룬다. 이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려는 여행객이 매년 끊이지 않는 풍광 명소다.

영암 칠출산 기찬랜드는 천연 지하 암반수를 활용한 자연 친화적 물놀이장으로 오는 18일까지 개장한다.

계단식으로 이뤄진 7개 풀장은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도록 수심을 다양하게 조성했다. 뿐만 아니라 실내 물놀이장을 갖춰 날씨에 상관없이 아이들과 함께 즐기기에 좋다. 또한 개장 기간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버스킹, 버블쇼 등 다채로운 공연 프

로그램을 운영한다. 시원한 물놀이도 즐기고 눈과 귀가 호강하는 시간을 보내며 여름휴가를 만끽할 수 있다.

함평 돌머리해수욕장은 서해안 낙조가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하다. 오는 15일까지 개장한다. 해변가에 조성된 인공 해수풀장은 여름철 피서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해수욕장에서 바다를 향해 설치된 갯벌 탐방로는 바다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인근 돌머리해수염지우센터를 이용해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천연 해수와 직접 달군 유황석을 활용한 해수욕과 해수탕을 즐기며 무더위로 지친 체력을 회복할 최적의 장소다.

해남 송호해수욕장은 모래가 굵고 수심이 얕아 해수욕을 즐기기에 제격인 곳으로 오는 15일까지 개장한다. 긴 해안선을 따라 수백 년 된 해송이 숲을 이루고 있어 나무 그늘에서 아열을 즐기기에 좋다. 인근 땅끝오도캠핑장, 땅끝전망대, 땅끝노레일 등을 이용해 서남해안의 쪽빛 바다 풍경을 감상하며 해남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은 해양과 산림 관광자원이 풍부하다"며 "전남 피서지에서 물놀이와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며 무더위를 날려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김영록 전남지사 "환경부 신규 댐 조성 환영"

### 전국 14곳 중 전남 3곳 포함

전남도는 최근 환경부의 신규댐(리모델링) 건설사업과 관련,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전남 3곳을 포함해 전국 14곳을 발표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와 관련, "최근 기후변화로 역대급 가뭄과 호우 등으로 주민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신규 댐 건설계획 발표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지사는 "댐 건설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마련과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에선 지난 2020년 집중호우로 구례 하천제방 범람, 2022년 281일 동안 이어진 극한 가뭄, 2023년 장마철 역대 최고 강수량 기록 등 최근 3년 동안 극심한 기후 양극화를 겪었다.

전남도는 향후 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주민지원 대책, 안개 및 서리 피해, 재산권 행사 제한 및 각종규제 등 완화에 환경부와 협조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지사 기자 dok2000@kwangju.co.kr

# 우수저류시설 확충·하천 정비...광주시, 자연재해 대비

### 2034년까지 1조2190억원 투입 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확정

광주시가 오는 2034년까지 1조 2190억원을 투입해 태풍과 호우, 강풍, 가뭄, 대설 등 잦아지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우수저류시설을 늘리고 하천, 저수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광주시는 최근 행정안전부 전문가 검토회의와 승인을 얻어 오는 2034년까지 10년 간 1조2190억원을 투입하는 '제2차 광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광주시는 광주천·북산천·선암천·송정천 하천정비 등 위험지구 저감대책 59개 사업에 1조1606억원

을, 재난 예·경보시스템 개선 등 전지역 단위 저감 대책 33개 사업에 584억원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선정된 59개소 중 침수 위험이 높은 서석고 일원, 백운광장 주변 등 10개소에 광주기상청 관측 이후 역대 최대 시우량인 86.5mm 보다 많은 88mm를 방재할 수 있는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한다. 시는 또 극락교, 운암시장 등 16곳에도 시우량 88mm를 방재할 수 있는 펌프장시설을 신설 및 증설해 재해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조사·분석해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방재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재해 예방 사업 추진의 국비 확보 근거자료로 활용되며,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한 각종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된다.

이번 '2차 종합계획'은 2016년 수립한 1차 종합계획을 개정·보완한 것으로, 구조적 저감대책(1조 2067억원)과 재난 예·경보시스템 개선 등 비구조적 저감대책(123억원)의 시행계획을 제시했다.

시는 또 인명 및 재산 피해,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D등급 이하, 재해위험도 등을 종합해 앞으로 10년 간 시행 가능한 59개소를 위험지구로 최종 선정하고, 84곳은 관리지구로 분류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현재 누구나 열람 가능하며 광주시 누리집 재난·안전 메뉴(https://www.gwangju.go.kr/safe/)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을, 재난 예·경보시스템 개선 등 전지역 단위 저감 대책 33개 사업에 584억원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선정된 59개소 중 침수 위험이 높은 서석고 일원, 백운광장 주변 등 10개소에 광주기상청 관측 이후 역대 최대 시우량인 86.5mm 보다 많은 88mm를 방재할 수 있는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한다. 시는 또 극락교, 운암시장 등 16곳에도 시우량 88mm를 방재할 수 있는 펌프장시설을 신설 및 증설해 재해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조사·분석해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방재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재해 예방 사업 추진의 국비 확보 근거자료로 활용되며,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한 각종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된다.

이번 '2차 종합계획'은 2016년 수립한 1차 종합계획을 개정·보완한 것으로, 구조적 저감대책(1조 2067억원)과 재난 예·경보시스템 개선 등 비구조적 저감대책(123억원)의 시행계획을 제시했다.

시는 또 인명 및 재산 피해,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D등급 이하, 재해위험도 등을 종합해 앞으로 10년 간 시행 가능한 59개소를 위험지구로 최종 선정하고, 84곳은 관리지구로 분류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현재 누구나 열람 가능하며 광주시 누리집 재난·안전 메뉴(https://www.gwangju.go.kr/safe/)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상반기 특별교부세 50억 확보

### 지역 현안 32억·재난안전 18억 AI 집적단지 실증 등 사업 탄력

광주시는 "2024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50억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확보한 특별교부세 50억원은 총 4개 사업에 사용된다. 분야별로는 지역 현안 2개 사업 32억원, 재난안전 2개 사업 18억원이다.

지역 현안 사업으로 인공지능 집적단지 실증·창업동 건립(27억원), 광주예술의전당 노후시설물 개선(5억원) 등 32억원을 확보했으며, 재난안전 사업으로 화재취약 진원방음터널 방음판 정비

(10억원), 하천 내 안전위험시설 정비사업(8억원) 등 18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시는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기술·인력·실증환경 등 자원을 한 곳에 집약한 인공지능집적단지 1단계 조성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광주시의 핵심 현안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원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